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자료집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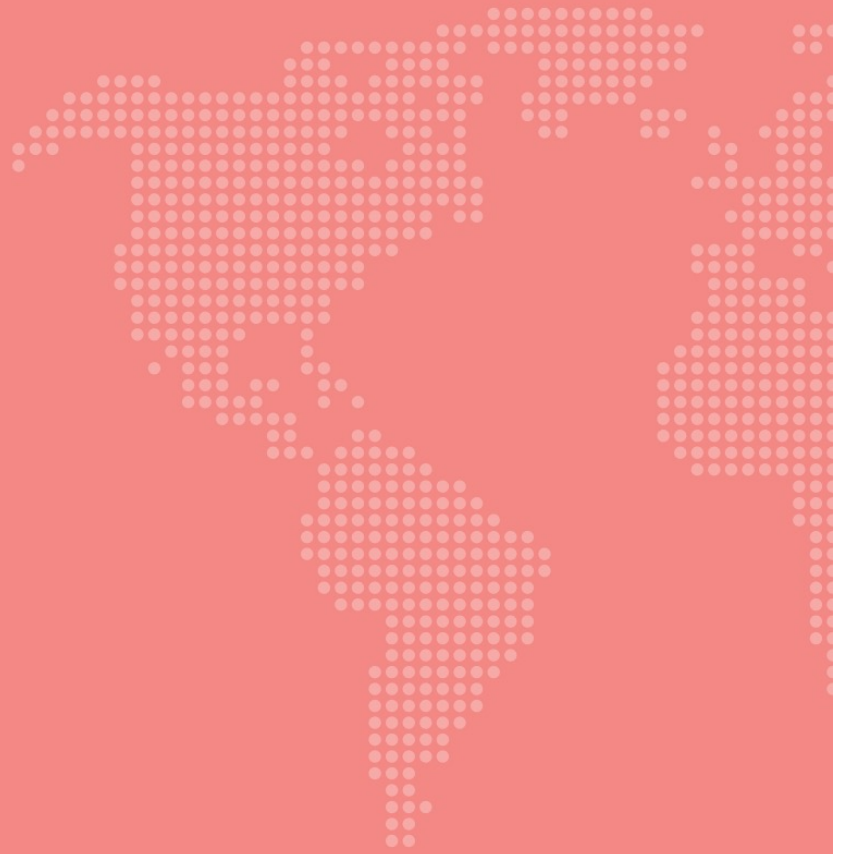
Arts Council Korea

overseas The Residenc  
denic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r



# 공연예술

---

# Italy

## CHAPTER 22

### 이탈리아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프로그램명	예지그로토프스키-토마스리차드 워크센터
국가	이탈리아
참가연도	2018년
참가기간	2018. 6. 25 ~ 2018. 7. 6
작가명	김시연

#### 레지던스 기관 소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폰테데라라는 곳에 위치한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이하 워크센터)는 예지 그로토프스키가 사망(1999)하기 전까지 수단으로서의 예술(Art as Vehicle)론 - 이 이름은 그의 작업을 보고 피터 브룩이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을 연구하던 곳이다. 그의 마지막 연구 작업에 함께 한 두 제자가 그의 사후,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리차드가 이끄는 '수단으로서의 집중팀'과 마리오 비아기니가 이끄는 '오픈 프로그램팀'이 각각 업스테어와 다운스테어로 나뉘어져 작업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에 있는 4주간의 마스터 과정과 여름에 있는 2주간의 인텐시브 과정이 있다. 이번 여름 인텐시브 과정 프로그램은 크게 노래세션, 모션, 텍스트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노래 배우기나 모션과 같은 세부 시간이 워크센터 멤버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대다수의 시간은 각자의 작업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워크센터의 멤버들이 1:1로 도움을 주고, 멤버들은 수장인 토마스와 참가자들의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텍스트가 완성된 후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워크센터 멤버들이 연기와 연출을 돕는데, 멤버들 간에도 자신이 맡은 참가자들 외의 다른 참가자들의 작업을 공유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워크샵 시간이나, 이후 시간을 이용해 두 팀의 공연 작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2주간의 레지던스 기간 동안 총 5회의 공연 관람이 있었고, 워크센터 내에서의 공연 3회, 피렌체에서 1회, 폰테데라 시내에서 1회의 공연 관람 기회가 주어졌다.

토마스 팀과 마리오 팀의 작업 색깔은 언뜻 크게 달라 보이지만, 그들이 컨퍼런스에서 말한 것처럼 본질은 다르지 않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첫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참가자들을 두 팀으로 나눈다. 기준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한 번 토마스팀과 만났기에, 의례 토마스팀과 작업이 이뤄질 거라 예상은 했다. 다른 해외 참가자들 중에는 이미 자국에서 열린 장, 단기 워크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레지던스 기간 중 이 두 팀은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노래세션의 경우, 업스테어에 있던 참가자들이 다운스테어로, 다운스테어에 있던 참가자들은 업스테어로 이동해, 다른 팀의 노래세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두 팀의 노래의 느낌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른 면이 있지만, 공간에 대한 즉흥적인 이해와 노래를 통한 존재에 대한 탐구는 다르지 않아 보였다. SNS에도 공개되지 않는 토마스팀의 엄격한 작업과는 다르게 마리오가 이끄는 오픈 프로그램의 경우 SNS 활동도 하며, 조금은 열려진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가웠다. 공간과 관계에 대한 즉흥이 필요했고, 오픈 코어처럼 워크센터 이외의 공간에서 열린 공연의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점심시간 전의 일정을 마치면 워크센터 내부 공간에서 자유롭게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메인 공간 안쪽으로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 곳은 주로 가구나 소품이 놓여져 있고, 제일 안쪽은 빈 공간으로, 아늑하게 집중하기 좋은 곳이었다. 메인 공간 바깥 쪽으로는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의상실이었는데, 이곳은 주로 여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고, 빈 시간에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다른 한쪽은 부엌, 화장실, 남자분들의 탈의실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다운스테어로 연결되는 계단에 앉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입구에서 주로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곤 했다. 점심 식사도 부엌이나 계단 혹은 워크센터 주변 풀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변이 거의 다 자연 경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프로그램 하루 전에 같은 숙소에 머무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 Patrick, 인도 뭄바이 출신 Parashar,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Alicia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어가 능통하지는 않은 편이라, 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작업자들이기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지 나이와 경험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숙소를 배정한 워크센터의 배려가 느껴졌다. 세 사람 다 모두 대학에서 연기, 움직임, 노래, 극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왜 여기 있지?”라고 웃으며 반문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워크센터팀의 워크샵 참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기에 이들과 함께 숙소배정이 된 거 같았다. Parashar(이하 Paro)를 제외한 세 사람이 자국에 방문한 워크센터 팀의 프로그램에 참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바빠질 일정을 위해, 이들과 주변 산책도 하고, 시내에서 이탈리아 본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또 어떤 참가자들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첫날을 맞았다. 나름 한국적인 것을 생각하며, 나의 새로운 작업과 어울릴 만한 옷을 사서 갔다. 첫날 있을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빨간 개량 한복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갔

는데, 평범한 복장의 다른 참가자들 속에서, 또 아시아인은 오로지 나 하나였던지라 빨리 옷을 갈아입고 싶어졌다. 두 팀을 나눠지고, 토마스 팀으로 불러진 참가자들은 업스테어로 올라가 노래 세션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보통 배우들이 입는 연습복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평소 잘 입지 않는 치마나, 드레스를 한국에서, 또 밀라노에 도착해서 여러 벌 마련해갔다. 시작 전 업스테어 문 앞에서 대기를 하였다. Guilherme이 문을 열어 주자, 내부에 놓여진 테이블, 벤치,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 토마스와 멤버들은 아주 조용하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공간에 서거나 앉았다. 노래세션 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참가자들이 많았기에, 영어를 못하는 참가자가 있는지 토마스가 확인했고, 내 영어상태를 알렸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후로도 다른 방안들을 제시해주었다. Jessica가 중앙에 앉았고,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멤버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에 낯설어하며, 그들의 무언의 안내들을 따라 공간을 이동했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의 반복되는 구음들을 따라가며, 휘둥그레한 눈으로 참여하는 다른 참가들과 달리, 끊임없이 이 모든 공간의 공기와 움직임을 흐르게 하는 센터 멤버들의 따뜻한 눈의 인도가 교차되었다. 리드하는 멤버의 노래는 토마스의 디렉팅으로 정리되고, 그 노래의 마무리 지점에서 존재를 깨우고, 감각과 순수 감정들을 깨우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또 그 끝에 또 다른 멤버의 노래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렇게 1시간 반, 두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모든 올림이 찾아들고, 그제서야 토마스가 설명을 해주었다. 각자의 고대 노래를 통한 각자의 예선 설한 부분들을 만나가는 시간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 되었다.

각자 숙소에서 마련해온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또 각국의 노래로 진행되는 이 시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2년전 에든버러에서 워크숍을 참석했던 Patrick은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시간 정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였다. 모든 발표가 마치고, 워크센터의 팀의 회의가 진행된 후, 전반적인 코멘트의 시간이 있었다. 토마스는 분류를 지어서, 혹은 한 개인의 작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코멘트들을 해주었다. 지난 겨울 마스터 과정에도 참가했던 프랑스 파리 출신의 Melane의 작업이 프로페셔널한 작업에 가까웠다고 하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작업과 달리, 구성과 연기력이 잘 정돈되었고, 완성된 형태로 보여졌던 프리젠테이션이었다. 특히 액팅에 대한 디테일과 인물과 인물의 전환이 연상에 의해 이뤄지고, 몸과 소리의 전환에 있어서 템포와 리듬이 살아있다는 평을 받았다. Dila의 경우, 리얼리즘의 연기는 아니었지만, 믿어졌고,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미국 출신 참가자들의 리얼리즘은 무게만 잡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적인 습관들에 대한 지적과 피지컬 연극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긴장과 과장을 주는 형태의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런 연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소위, 펌핑, 쇼잉에 대한 경계해야하는 지점에 무척 공감됐다.

흥미로운 것 중에, 이미 이 워크숍을 경험한 참가자가 워크센터의 작업을 모방하듯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이 경우 작업을 단순화시킨 좋지 않은 사례로 강하게 경계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얕이라는 무덤에 갇히고,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과 권위를 느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가 보다. 살아있는 Human being의 논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깨워내야 하는 것이 배우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주로 창작을 처음 시작하는 배우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백 같은 글을 쓰기 쉽기 때문

에, 내가 무엇을, 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 템포&리듬, contact, address, compositon, meaning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국 단기 워크샵에서 나를 전담해주었던 워크센터 메인 멤버, 제시카가 이번에도 내 멘토가 되었다.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받을 때 영어가 문제가 될까봐, 통번역 어플을 사용하고, 녹음을 하는 방법을 허락해주었다. 제시카는 이번 여름 워크샵에 가져온 <Beyond>라는 작업 대신, GB팀과 올해 2월에 창작과 과정이라는 사업에서 발표한 <Scapula>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다. 2015년에 함께 했던 작업이다. 내심 그 이전 작업보다 새로운 작업에 대해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일단 토마스나 제시카의 제안대로, 2월에 한 <Scapula>를 둘째 날 다시 프리젠테이션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 의상이나 필요한 소품들은 워크센터 바로 위에 살고 있는 제시카가 자신의 방에서 직접 소품을 고르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워크센터 제일 안쪽 방에서 토마스, 제시카만을 관객으로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토마스는 이 둘의 작업을 믹싱해보는 것을 제안했고, 이 둘의 작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원했다. 공통점을 찾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성경의 야곱의 사다리를 예를 들어주며, 한 인물이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되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고대 신화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드라마투르를 제안했다. <Beyond>는 선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Scapular>는 집의 무너지는 이미지를 통해 한 여자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었다. <Beyond>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던 시기라 그 경계선에 대한 이미지로 시작하여 어린 시절의 고무줄 놀이와 연계해서 시도한 작업이었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단순하다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아 섞어보는 작업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첫날 노래의 퀄리티를 살려, 드라마투르기에 맞는 좀 더 강한 느낌의 노래를 찾고,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을 도울 이미지를 찾는 것과 한국의 신화 리서치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는 10월, 워크센터의 토마스 팀이 한국에서 2주간의 워크샵과 오픈리허설을 하는 아르코국제레지던스 사업이 확정된 상태여서 인지, 토마스는 나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와 한을 다루던 백현주님의 작업을 연계해보면서 한국 작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틀 뒤 미팅에서는 제시카가 내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어느 정도 작업과 관련한 정보가 있어서 인지, 내가 왜 선(line)을 다루고 싶은지, 그것의 나의 어떤 부분에서 시작된 것인지 한국에서 작업을 해간 상태여서, 제시카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종교, 이해관계, 성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면서, 제시카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나도 제시카에게 영감을 받으면서, 시와 노래, 신화 등 많은 것들을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때로는 제시카를 통해 얻어진 한국적 정보들이 더욱 강력하게 전해지기도 했다. 난 2014년 협업으로 한 <곰곰>이라는 신체극을 떠올리며, 단군신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제시카가 찾은 <창세가>라는 신화가 내가 <beyond>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과 매칭이 잘 되었다. 제시카는 <단군신화>도 염두해두었지만, 우리는 <창세가>를 택하는데 마음이 일치했다. 노래에 대한 부분도 그랬다. 내가 첫날 발표한 <홀로 아리랑>에 대한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scapula>에 나온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는 좀 더 고대의 노래로 리서치해야 한다고 제안해주었다. 이들이 고대 노래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국 전통노래를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로 간지라, 민요나 판소리를 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럽기도 했다. 더군다나 집이 무너지는 순간의 강력함을 표현할 고대 노래를 찾는 것

이 쉽지 않았다. 리서치한 노래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내가 알고 있던 <도라지>, <밀양아리랑> 정도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졌다. 리서치 중 제시카가 한국의 <만가>가 너무 아름답다며 들려주기도 했다. 전통 노래에 관련하여 내가 참 관심이 없었구나 싶으면서 역으로, 한국의 좋은 소리들을 재발견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제시카가 어디선가 들었었는지, 이야기하는 방식의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다. 판소리를 뜻하는 것 같아,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라고는 단가 중 <사철가>의 앞소절 뿐이라, 그것을 들려주었더니, 이것이 맘에 든다며 이 노래를 텍스트에 넣어보자고 하였다. 첫 주의 마지막 작업 날은 이렇게 정해진 노래들을 가지고 제시카와 긴밀히 작업하였다. 손 끝에 흐르는 에너지, 몸의 감각, 그 몸을 관통하는 소리를 찾고, 울림을 찾고, 자유롭게 흐르는 몸의 위치와 감각들을 탐험해갔다.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땅에 엎드렸다 기어가기도 하며, 앉아서 적당한 다리의 간격과 척추의 정렬,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깨워 가며 소리를 만나갔다. 내가 전통노래의 울림을 실현할 기술을 갖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것보다 지금의 나를 울려내는 것에 집중하자,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소리로 만나지고, 손끝을 따라 소리가 흘러가는 지점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머리로 알았다 하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 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가라고 서포트 해준 제시카의 말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둘이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소리를 쏟아내며, 심장에서 샘솟는 말로 할 수 없는 살아있음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 아마 삼 일째 본 <Living Room>에서 받은 감동과 한 주간 진행된 노래세션, 부엌에서 틀리면 이뤄지던 토마스의 참가자들과의 교류-이건 말이 없는 그저 무언의 에너지 흐름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시간들이 축적되어 이뤄진 성과였다. 이들 간의 휴식 동안에도 노래연습과 텍스트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쓰고,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2주차가 되었고, 노래세션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다운스테어와 업스테어를 오가며 노래세션이 있었고, 그 작업이 배우의 존재를 깨우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으로 느끼고, 공연을 통해 그 울림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 의식 같은 시간이 신비롭기만 하였다. 이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이 공간과 시간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히 감동인 시간이라는 것을 느낀 한 주였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온 2주차 노래세션에서 토마스가 나에게 조용히 침투하듯 다가와 노래 리드를 시켰다. Guilherme에게 배운 노래 소절을 한국의 메기고, 받기처럼 토마스의 지시에 따라 이어갔다. 처음엔 제시카와 할 때처럼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노래가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몸의 형태와 위치를 변화시켜주었다. 그 때 내 안의 코어와 순수체가 만나지면서 아무런 이유 없는 웃음이 퍼져나왔다. 그리고 그 에너지 흐름은 내 주변의 토마스, 워크센터 멤버, 참가자들에게 조용히 퍼지고 있음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행하던 걸 보아온 것처럼 어떤 황홀경같은 기분은 아니었다. 오히려 침잠하고, 고요해지는 존재의 만남이었다. 운이 좋게, 레지던스의 마지막 노래세션에서도 리드의 기회가 왔고, 토마스는 나에게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하게 해주었다.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지고, 더 살아있는 모습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감사한 기회와 경험이었다.

다운스테어에 있을 때에도 마리오가 혹여 내가 다 못 알아 들을까봐 나에게 따로 다가와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다. “여기에 빈 의자가 놓여졌지만, 이 곳엔 사람이 앉을 거니까, 가려선 안 되고, 벽이 있지만, 벽과도 관계해야 한다”는 그 말이 나에게 특별히 다가왔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

를 상상하고 바라보며 작업하는 것, 끊임없이 공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던 마리오팀의 작업도 인상적이었다. 토마스팀의 작업보다 좀더 캐주얼한 곡들도 있고, 멤버들의 의상도 그랬다. 브라질, 이란, 미국, 폴란드, 프랑스, 아프리카 등 좀 더 다양한 국가의 배우들과 작업하고 있었다. 마리오 팀에서도 리드의 기회를 얻은 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살아있음 속에서도 상체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받았다. <Living Room>관람 후에 마리오와 같은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가 한국의 전통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며, 한국 배우들과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 멤버들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랍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시아의 배우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공감이 되었다. 올해는 아르코극제레지던스 사업에 토마스팀이 한국에 오지만, 기회가 된다면 마리오팀도 함께 초청해 그로토프스키의 두 제작자가 어떻게 작업을 계승해오고 있는지 한국에 소개되면 좋을 거 같다.

2주차 화요일이 되어서야 텍스트의 첫 부분이 나왔다. 나도 그렇지만, 제시카 역시 두 텍스트의 공통점을 찾아 믹스시키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 더군다나 오는 10월 아시아 투어 준비를 위해 기획일까지 하고 있는 제시카가 바쁜 모양인지, 텍스트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해서,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다. 이 상태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기도 했고, 많은 부분 욕심이 내려지는 부분도 생겼다. 텍스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상이나 소품 등의 구성, 연출을 시도하는 제시카의 작업이 못내 아쉬기도, 앞으로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내심 속이 타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창작작업에서는 일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순서랄 것이 없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주어진 만큼 연습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래도 마지막 텍스트가 프리젠테이션 전날 저녁에 나온 것은 나에게 무리수였다. 이쯤 되자, 그동안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웃지 못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참가자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Patrick이 말해주니, 이 또한 프로그램 안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번역과 텍스트를 짧은 시간에 익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누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피곤함으로 액팅이 단선화되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마지막 날 새벽 4시가 되어 집에 귀가하였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당일 아침 8시 30분까지 다시 워크센터로 돌아가 텍스트와 스코어를 체크하였다. 참고로 버스 배차도 없는 아침 시간이라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걸어 이동했다. 점심 이후, 순서라 간단히 요기를 하고, 쉬는 시간까지 활용해 제시카와 스코어를 체크하던 중 두려움이 엄습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 번역투로 덜컥거리는 대사 걱정으로, 살아있던 감각들이 단선화되자, 제시카는 노래를 부르게 했고, 이후 난 나의 두려움도 솔직히 나누자 다시 감각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가 잘해왔고, 즉흥을 해도 좋으니, 멈추지 말고, 무대에서 살아있으라고 힘을 주었다.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 때,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2시간도 못 잔 상태로 텍스트는 정돈이 안 되고, 하기 싫다. 안 해도 괜찮다. 난 이 정도 과정만으로도 만족한다 등의 생각들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 것들을 믿고, 알 수 없는 시간에 나를 던져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 대사부터 틀렸지만, 당시 내가 깨워낼 수 있는 에너지들을 동원해 준비된 극을 즉즉 이어나갔다.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난 분명히 살아냈고, 살아있었다. 템포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것이 준비된 것들을 끝까지 해내게 한 힘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은 한 사람당 그 자리에서 바로 코멘트를 해주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참가자들의 발표는 그 자리에서 끊고, 멘토가 티칭을 하게 한다거나 토마스가 직접 개입해 개선되도록 하였다.



나의 경우, 아무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나 역시 완벽하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의 연기에 그들이 웃고 반응하는 힘이 신기하다고 토마스가 말하였다. 나 역시도 그들이 신기했다. 단가라는 새로운 형식의 노래 소스도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거 같다. "Excellent"라고 한 그의 말에 어리둥절하기도 하며, 십 수년 만에 온전히 깨어있는 감각을 체험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마치고나니 이들은 탈진에 가까운 상태로 보내게 됐다. 프리젠테이션 후,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이 다가와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었다. 2주 간의 프로그램 동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레지던스 멤버까지 와서 말이다. Melane은 와서 영어 대본을 더 보고 싶다고, 메일 주소를 건네받기도 했다. Dila, Paro, Alicia, Patrick, Nathali 등 메일이나 SNS를 주고 받았다.

Benoit가 이끄는 MOTION 시간도 유용했다. 한국에서 단기 워크샵 때 기대했던 신체훈련이 없었던 지라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도 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그로토프스키 식의 훈련이 이 후에 많이 정제되고, 정리되어진 듯 했다. 알고 있던 거친 방식의 훈련은 아니었고, 팀이 하나로 이뤄질 수 있을 만큼의 집중과 하모니가 중요시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양 사상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로토프스키였고, 요가를 이용한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을 알고 있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했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기 보다는 정신과 감각의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었다. 사냥하기 직전의 동물의 상태처럼,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프라임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었다. 이후 스트레칭과 총동 반응에 대한 훈련도 있었으나 심도 있는 훈련 시간이 좀 더 할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몸을 다루는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들이 적용된 MOTION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해온 요가수련, 타말파, 알렉산더 테크닉, 발성 등이 도움이 되었고, 몸을 이해하는 연결 고리들이 내 안에서 찾아졌다. 늘 발소리를 내지 않고, 온 몸의 감각을 살려 걸어다니던 멤버들의 모습들이 많은 자극제가 되었다. 안토냉이 한 시간 정도 신체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숨이 차게 뛰며 다니면서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간의 관계를 맺고, 눈을 마주치는 액션 사이즈였는데, 확실히 몸이 무겁고, 머리로 예측하려는 습성이 드러났다. 한국에 돌아오면, 개인 신체 훈련과 전통 노래 배우기, 영어, 폭넓은 독서 등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싶었다.

매주 금요일, 프로그램 동안 총 2번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금요일은 워크센터 내의 대청소 시간이라서 하루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모든 멤버들이 청소를 한다. 참가자들도 힘을 모아 한 주 동안 사용한 공간을 청소하는 시간도 참 의미있었다. 첫 주는 구석구석 거미줄 제거, 둘째 주는 바닥 청소기밀기를 했는데, 20년 그 이전부터, 그로토프스키가 마지막 작업을 했던 이 공간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런 일처럼 느껴졌다. 한편 이런 프로그램 일련의 과정 안에서 워크센터 멤버들의 역할이 보여지고, 일상 생활의 질서가 보여지면서, 여느 극단과 비슷하면서도 또 굉장히 체계적인 분담이 이뤄지고 있어 보여 보기 좋았다.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념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따뜻한 포옹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 다른 나라, 말, 언제 어디서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 곳에서 뜨겁게 나누는 시간이 가슴에 오래 머물 거 같다. 프로그램 동안 마음에 어떤 작용이 와서인지 종일 울기만 하던 Erika가 참 예쁘고 잔해서 전신마사지도 해주고, 마시지용으로 테니스공을 선물했다. 긴장될 때 근육을 풀어주면

좋으니 말이다.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집에 가기 싫다고 울먹이던 터키 출신의 이쁜 Dila에게도 아마 이 시간이 너무 생생하고, 뜨거웠을 거다.

워크센터 멤버들에게는 이번 10월에 모두들 한국에 오는지 물었다. 중국 공연 여부는 확실히 알아도, 한국 워크샵 참가여부는 아직 멤버들에게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Under Ground> 출연진은 거의 다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Tara는 베스트 프렌드가 10월 결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홍콩 공연을 마치고 같이 합류하게 될 거 같다. 몇 년 전 워크센터 내에 한국 멤버가 있었는지, Benoit와 Guilherme은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치 찾고, 비빔밥에 누룽지까지 아는 이 친구들에게 숙소에서 남은 볶음고추장, 쌈장, 라면, 누룽지, 믹스 커피 등을 다 주고 왔다. 이번 10월에 한국에 방문하면 이 친구들 갈 수 있는 맛집을 좀 찾아놔야겠다. 김을 좋아한다는 나의 동력자, Jessica에게는 김 10봉지를 주었다. 토마스와는 곧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이전 한국 레지던스 참가자의 멘토였던 Cecil은 GB멤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했다. 현주님과 같은 기간에 마스터 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스 멤버로 활동 중인 Maria와 현주님의 교신 역할도 하였다. 윤경님이 작년 여름에 두고 온 작업 노트도 Maria에게 받아 전달해 드렸다.

이후 뒷풀이 자리가 있었는데, 숙소를 같이 쓰던 Alicia가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기차를 타야 해서, Patrick과 셋이 오붓하게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 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기며, 이런저런 추억담에서부터 프로그램 소견들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알파카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워크센터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머물렀고, 매일 아침 부지런히 나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정이 들었다. 버스 시간에 맞춰 가야한다는 생각에 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던 사건과 혼자 메일링을 받지 못해 이른 새벽에 홀로 깨있었던 에피소드는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내내 웃음거리가 되어주었다. 작업에 욕심과 열정이 있던 Alicia가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에서 첫날보다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많이 아쉬워했고, 그녀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Patrick의 말처럼 정답은 없는 거다. 워크센터가 답인 것도 아니다. 멤버들이라고 어떤 매너리즘이 없는 것도 아닐 거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도 아닌 거다. 하나의 문과 경험을 한 것이다. 또 다음은 다른 것이니까. 앞으로 나의 작업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시작과 함께 얻은 것들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도 고민해가야 할 것 같다.

이미 이탈리아 워크센터 레지던스를 다녀온 GB팀원들, 그리고 10월 다시 한국에 방문할 워크센터 멤버들 또 그 중간 시점에서 나에게 참으로 좋은 시기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르코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프로그램에 지원 선정이 된 이후, 5월 초부터 워크센터와의 메일을 주고 받게 된다. 참가비 안내, 이탈리아 지원서 등에서부터 프로그램 준비사항, 숙소 및 도착과 출발 일정 등에 대해서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워크센터 멤버들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워크센터 측에서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하루 전날에 도착하는 것을 권했고, 사전에 폰테데라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워크센터에 전달한 상태였다. 폰테데라역은 아주 작은 기차역이었기에, 기차역에 앉아서 운송 담당인 David를 기다리는 동안, 기차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함께 하게 될 참가자인지 예측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다 맞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Rio, 프리젠테이션의 소품처럼 보이는 사다리를 안고,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던 Patrick, 이 친구는 나의 룸메가 되었다. 또 한 명의 미국에서 온 어린 친구는 이름을 잊었지만, 레지던스 참가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친구는 마리오 팀에 배정됐다.

이렇게 피사에서 한 정거장, 피렌체에서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폰테데라 기차역에서 만나 “파노라마”라는 대형 마트에 방문했다. 숙소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1주일치의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마트의 식재료들은 무척 저렴하고, 신선했다. 10만 원 정도의 장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햇반이나 반찬들이 있어서였는지, 처음 본 장만으로 2주 동안 먹고도 남아, 며칠을 싸들고 다녔고, 몇 개는 버리기도 했다. 점심은 싸들고 다녔는데, 파스타를 만들어서 싸오는 친구들도 있고, 야채나 샐러드, 과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햇반과 통조림으로 점심 도시락을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작 방온 콘프레이크나 파스타, 과일 등으로 해결했다.

숙소는 워크센터 근방으로 참가자 수나 가능한 숙소에 따라 센터 측에서 미리 구해준다. 대부분은 워크센터가 있는 발리첼리에서 더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알파카에 머물렀고, 나의 경우는 시내 쪽에 가까운 편이어서, 대형마트인 파노라마도 걸어서 10분, 폰테데라 역도 2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숙소가 있었다. 하지만, 워크센터까지는 거리가 좀 되어서,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마지막 날은 콜타임에 맞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그것도 자주 없는 시간대도 있고, 몇 분 정도의 오차도 있어서 아침엔 8:26분 La rotta 행 버스를 타기 위해 숙소에서 8:05에 출발했다. 정류장도 숙소나 워크센터에서 떨어져 있어 도착하는 9:00쯤이었다. 우리 숙소에 머물던 친구들은 항상 1시간 전에 도착했고, 나중에는 적응되고, 여유도 생겨서, 정거장에 내려 식료품을 구매하고, 사진도 찍으며 걸어가도 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숙소 위치에 따라 그룹을 지어 센터 내 차량과 멤버들 개인 차량들을 이용해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숙소 도착했을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었다. 워크샵 시작 날도 문제가 되어 첫째 날은 일정을 마치고 Paro와 인근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다행히 시내에 숙소가 있던 우리는 커피숍을 찾아서, 그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이었나 와이파이기가 작동이 돼서 숙소에서의 작업은 무리가 없

었다. 워크센터에 와이파이기가 안된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리서치를 위해 인터넷을 쓰게 될 일이 있어서, USIM이나 LTE 데이터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나도 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 여행 때에는 USIM을 쓰는 편인데, 외딴 곳이라고 들어서 혹시나 속도에 문제가 생길까봐 LTE를 충전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혹독 닳아서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다음 참가자에게는 USIM을 권하고 싶다.

오프날엔 밀린 빨래와 짐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Paro와 함께 찾았던 커피숍에 가서 필요한 리서치를 했다. 주변이 익숙해지니 집 근처에 생각보다 편의시설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 보였다. 파노라마 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일반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마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Lid이라는 대형마트도 있었다. 폰테데라는 노인이나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처럼 보였다. 숙소 주변은 주택가여서, 작은 식료품 가게나 약국, 책방 정도가 있었다.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는 나름 변화가가 있어서, 식당이나 옷가게, 극장까지도 있었다. 밀라노, 피렌체 같은 대도시나 인근 관광지에 비해 물가가 저렴했다. 특히 식당에서 와인 1잔에 2유로, 1/2 병에 4유로였고, 맛도 너무 좋았다. 시간이 되면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좋았다. 레지던스에 있던 6월말~7월초는 28~31도 정도의 기온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워크센터에서 주로 낮에는 밖에 나와 작업할 일이 없지만, 이따금 나와있으면 별이 뜨거웠다. 하지만 한국 와보니 이탈리아 날씨는 천국이었고 느껴질 만큼 무척 그리워졌다. 숙소에서도 낮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팬으로만 바람을 쐬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모기는 좀 많았다.

###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연극론을 접할 때, 스타니슬라브스키를 구약성서, 그로토프스키를 신약성서라고 할 만큼 그로토프스키의 연극론은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가난한 연극>으로 알려진 그의 초기 작업을 기억하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제의적이다. 원초적이다. 성스럽다. 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강력한 신체훈련에 대한 이미지까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로토프스키는 신체연극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했다기보다 존재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으로, 동서양을 막론한 다방면의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연극연출가이다. 때문 그의 작업을 오히려 인류학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그의 후기 작업의 제자였던 토마스 리차드가 <수단으로서의 예술>을 이어 받아 이탈리아 폰테데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2015년 한국에서의 단기 워크샵으로 그들의 작업을 경험했을 때에도, 이미 나의 예상과 다른 작업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번 2018 워크센터의 여름 프로그램도 그 맥락의 확장판이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 본다. 예술가로서, 혹은 연극에 종사하는 배우, 연출, 작가 혹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1인 창작자 누구든 이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만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얻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깨어내고,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면의 것들을 깨워가고, 질문하는 시간 말이다. 고대 노래, 모션, 텍스트, 즉흥, 드라마투르기 등 기술적인 배움보다 이것들을 통해 이 작업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닐까 싶다. 경력이 오래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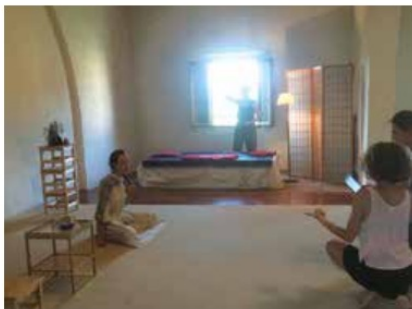
든, 지금 막 시작하였든, 자신의 작업에 대해, 혹은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 더 찾고 싶은 것이 있는 작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어딘지 막혀있고, 초심을 잃었다면, 술한 형식들에 지쳤다면, 한번은 깊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길 권하고 싶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다. 늘 깨어있어야 하고, 소위 멘붕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살아있는 몸과 정신을 워크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3년 전 단기 워크샵과 이미 레지던스 경험이 있던 두 분과의 <Heart of Practice> 스터디가 이번 레지던스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과거 그로토프스키 식 훈련을 했던 극단 경험과 함께, 그동안 해오던 요가, 타말파, 알렉산더 테크닉, 발성 수업도 좋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지속하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도 더 생겼다.

그로토프스키 연극론에 대한 예찬과 워크센터 팀의 작업에 대한 열중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인지, 작업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다만, 창작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것과 영어가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 둘 중에서도 더 큰 걸림돌을 고르라면 언어였다. 해외의 우수한 많은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어도 항상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 영어였다. 대입 입시 이후 영어와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아왔고, 몇 번 공부를 시도했지만, 아니다 싶어 '영포자'로 살았다. 해외여행 정도에서 간단히 쓸 정도의 실력이라 영어로 작업한다는 것은 두려움, 거의 공포 수준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지원서를 쓸 때도 고민이었지만, 후보에 있을 때에도 다음에 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 이미 선정이 되었을 때는 나에게 잘 못 온 기회는 아닐까 의구심도 들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에 급하게 영어책을 꺼내고, 학원도 끊었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리 쉽게 터득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서, 오히려 최악의 경우들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변화와 큰 성과를 얻는다는 욕심부터 내려놓았고, 그동안 해온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소통 때문에 상대가 괴로워하고, 내가 외로워지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의기소침해지기보다 소통할 다른 방법들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통번역 어플도 깔고, 메모지도 두둑히 준비하고, 못 알아 들은 건 다시 되물 수 있는 용기도 준비하는 식으로 말이다. 주변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길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막상 내가 영어가 힘들다는 것을 밝히자, 오히려 그들이 소통할 다른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배려해주는 면들도 생겼다. 통번역 어플이 있냐고 먼저 물어줬고, 코멘트를 줄 때 녹음을 하도록 권해주었다. 물론 언어가 수월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소통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라고 작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자유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영어가 유창하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안 될 것은 없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길이 열려지고, 워크센터 팀의 열정과 지혜가 더해져,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작업한다면 최악은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자기 전에 생각도 못했다. 떠나기 전에 동료들에게도 그랬다. 내가 잘 마치고 돌아오면 많은 '영포자' 작업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영어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고, 문자에 익숙한 외국어에서 소통 가능한 외국어를 익힐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꼈으니까.

해외레지던스에 대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이전의 깊은 인간의 살아있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뿌리, 전통에 대해서도,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 Italy

## CHAPTER 22

### 이탈리아 예지 그로토프스키 - 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

프로그램명	예지그로토프스키-토마스리차드 워크센터
국가	이탈리아
참가연도	2017년
참가기간	2017. 6. 7 ~ 2017. 6. 19
작가명	홍윤경

#### 레지던스 기관 소개

여름집중과정은 총 12일 중에 중간 off-days를 빼고 10일간 (5 work days- 2 off days - 2 work days) 진행됐다. Vallicelle 라고 불리는 워크센터 건물은 Pontedera 기차역에서 차로 약 10~15분 정도 소요 되는데 워크센터 멤버들이 직접 pick up 서비스 차 나와 주고 특히 Vallicelle 주변에는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방문 첫날과 중간 off-days 중 첫날에 Pontedera 근처의 Panorama라는 커다란 쇼핑에서 한꺼번에 쇼핑을 하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워크센터에서 제공하는 apartment 형식의 lodging 숙소중 하나가 바로 근처에 있다.

워크센터 건물은 2층 건물로 각 층마다 화장실과 주방 겸 부엌이 있으며 1층은 따로 탈의실이 있지 않지만 2층은 남녀 각각 탈의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메인 홀 뒤편에 중간 복도식의 공간과 그 공간 너머 또 다른 독립된 공간이 있었다. 중간 복도식의 공간에는 소품이나 공연에 필요한 가구를 배치해 놓는 공연 대기실과 같은 공간이었고 지하수를 직접 먹어도 될 만큼 양질의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자유롭게 수도꼭지를 틀어 안심하고 수분을 보충해도 된다.

센터 내부 메인 홀들은 대부분 둥근 돔 형식으로 특히 2층 내부의 천장은 한국의 전통가옥을 연상하는 나무 빗장이 눈에 띈다. 메인 홀에 들어갈 때는 가장 정숙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절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안 된다. 작업장에서 느껴지는 신성함을 말하더라도 하듯 하얀색 내부에는 불필요한 장치하나 보이지 않는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이번 여름 집중과정은 Open Program을 이끄는 Mario Biagini팀과 Research team을 이끄는 Thomas 팀 모두를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주로 함께하는 팀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본인은 Thomas팀과 주로 활동했다.) 오전 노래세션에는 하루씩 번갈아가며 분위기나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디렉터의 디렉션에 맞춰 노래세션에 참여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보통 오전 시간에는 dressed up 한 상태로 워크센터 멤버들 각자가 리드하는 노래에 맞춰서 함께하는 sing session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sing session이 끝나면 워크샵 첫날에는 미리 공지했던 개인 presentation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날에는 bathing suit(비키니형식의 수영복)를 착용한 채 워크샵 멤버 중 한명의 리드로 motions 훈련이 진행된다. 본인이 있었던 그룹은 Jessica와 Benoit가 번갈아 가면서 motions 동작을 리드했는데, Jessica의 훈련은 exercise나 play에 가까운 내용으로 아래층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윗층에 있는 우리들(참가자들)은 발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로 놀이를 시작한다. 고양이 자세로 시작해서 숲속에서 다른 동물을 만나 반응하는 partnership이 있는 놀이까지 숨소리 발소리를 최대한 자제해가며 살아있는 동작을 연출해야 한다. 보통 숨이 차면 동작이 끝난 위에서만 활성화 되고 끝반 아래쪽은 비활성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숨의 저항과 몸의 저항을 이겨가는 동시에 즐기고 있는 자신을 만나려고 끊임없는 self-check가 필요하다. Benoit가 이끄는 motions는 몸의 중심축을 잃지 않고 stretching하는 형식으로 일정 패턴과 순서가 있고 배우들의 position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각 routine을 네 명의 배우들이 리드하게 되는데 각 배우들의 동작이 끝나면 다른 배우들의 움직임과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서서히 시계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자신의 시선 안과 밖을 모두 볼 수 있는 눈과 내 주변의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서 마치 한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시공간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motions 훈련이 끝나면 bathing suit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데 마른 걸레와 대 걸레 등으로 main hall 바닥을 함께 청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이 숙소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서 오곤 하는데 센터 내 주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샐러드와 드레싱을 나눠서 함께 나누기도 한다. 도시락 팩을 따로 숙소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니 재활용 팩을 잘 세척해 놓았다가 도시락 통으로 재활용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시락 먹는 장소는 1층이나 2층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먹기도 하지만 보통 참가자들은 워크센터 야외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오전에 있었던 집중된 훈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꿀 맛 같은 휴식인 셈이다.

오후에는 첫날 presentation 시연에 대한 feedback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날 오후 스케줄은 자신의 작품(piece)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보통 참가자 한 명당 워크센터 멤버 한명의 멘토가 지정되는데 한명의 멘토가 여러명의 참가자를 담당하기도 한다. 본인은 cecile이라는 멤버와 1대 1로



멘토-멘티가 되어 작업을 했다. 토마스가 피드백한 내용을 토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dramaturgy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신이 쓴 내용을 어떻게 무대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score)가 진행된다. 대략 5분~10분가량의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진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하는 배우들은 보통 첫날 presentation 했을 때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 마치 그간의 작업 집중도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모든 배우들의 모습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이렇게 보통 워크숍 하루일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중간 점심시간 이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워크숍 막바지에 가까울수록 6시 일정 후에서 센터에 남아 개인 작업을 하는 배우들과 멘토 들도 곧잘 있다. 본인은 마지막 presentation 발표 전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어서 일찍 숙소로 들어간다고 간 시간이 저녁 10시 경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새벽 4시까지 작업 후 오전 9시에 다시 센터로 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있는 모습으로 무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도 마지막 presentation을 무사히 행복하게 마쳤던 기억이 있다. 살아있는 관객과 살아있는 무대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소중한 작업들. sing session을 하면서 토마스가 나에게 내밀어주던 손의 느낌 표정 그리고 노래와 나의 숨이 만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생기, 그리고 마리오 팀과 대화하듯 노래세션에 참여하면서 눈을 마주칠 때 느꼈던 온 감각이 지금의 내가 되어 쉬 쉬 하고 있다. 집중도가 전문적이라 자칫 감성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감성에 빠지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바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작업, 상대배우와의 아주 긴밀한 교감에서 느껴지는 섬세함 그리고 기다림. 연극이라는 작업만이 얘기할 수 있는 배우 자신으로서의 '나' 그리고 배우간의 교감, 배우와 공간과의 만남, 살아있는 소리로서의 초대 등등 이 모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은 그로토프스키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길 적극 권하고 싶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워크센터 바로 옆에 있는 숙소부터 시작해서 Sodole, Othello, Alphaca까지 모두 네 곳으로 나뉘어 배정되었다. 본인은 Alphaca라는 숙소에서 묵었는데 워크센터에서 보통 걸어서 30분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근처에 몬테카렐로(Montecarello) 라는 clock tower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인상적인 곳이다. Alphaca 숙소는 크게 네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 2층에 두 곳 1층에 두 곳으로 나뉘며 본인은 1층 정 중앙에서 두명의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Alphaca 중 Ciliere라 불리는 그곳은 4개의 싱클 침대가 있고 주방과 조금 분리된 다이닝 룸과 욕실이 있다. 세탁기는 ciliere에는 없어서 다른 곳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세탁기를 사용한 후 빨랫대에 넣어 세탁을 했고 작은 빨래는 가져간 빨래 비누로 손빨래를 해야 했고 건조기는 없어서 자연바람에 말렸다. 숙소에서 가까운 주변 음식점이나 supermarket은 없는데 Montecarello 시계탑 쪽을 지나 '알파끼노'라는 음식점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가도 될 정도였다고 들었던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숙소 안내장에 분리배출일이 있다는 얘기만 언급해 놓고 언제 무엇을 내놓아야 할지 적혀 있지 않았었다. 그리고 음식물 배출 용기가 따로 숙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검정색 봉지만 제공이 되어서 재활용쓰레기만 supermarket에서 장볼 때 받은 비닐봉지에 따로 분리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나중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했다. 장 볼 때나 음식점을 갈 때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물을 기본 제공해 주지 않고 꼭 사먹어야 하는데 보통 컵으로 팔지 않고 유리병의 형식으로 2~2.5 유로만큼의 고가의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에비앙 물을 사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훈련받을 때 이외 다른 지역에서 오픈 프로그램 참여 차 이동하게 되면 개인 병에 물을 챙겨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로토프스키라고 하면 보통은 신체훈련에 집중한 훈련을 떠오르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로토프스키 후기 작업이 정착된 이곳 Vallicelle 워크센터의 'Art as a Vehicle' 운반수단으로서의 예술 작업은 비단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motions 라는 훈련 파트가 있지만 그것에 집중되었다기보다 배우 본질을 보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탐구하고 자신에서부터 출발한 예술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치밀하게 무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워크샵 첫날 3분가량의 presentation을 준비해 오라는 공지를 먼저 받게 될 텐데 자신의 작품과 어울릴만한 의상은 최대한 챙겨 가는 게 좋다. 화려하고 현란한 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에 꼭 필요한 의상이나 소도구까지 생각해 가면 좋고 그렇지만 presentation을 마친 첫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토마스 혹은 마리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 되어 질 것이다. 자신이 준비해 간 presentation의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작품의 의도를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배우자신이 구현해 내고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신이 알고 있던 '나'라는 틀을 깨기 위한 무한 open mind가 필요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한 없이 포용할 수 있도록 bathing suit (비키니) 의상을 받아들일 만한 몸과 마음자세도 자신과의 또 다른 만남이 될 것이다. 특히 노래세션을 할 때와 Mario와 함께 Pontedera 혹은 Florence 내 성당에서 진행되는 open program에 동참할 기회를 대비한 suit(남자배우의 경우) dress(여자배우의 경우)를 최대한 넉넉히 가져가보는 게 좋다. 비단, 의상으로 남녀를 차별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이 아닌 자신을 가장 돋보일만한 예의를 갖춘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자유로울수 있겠다. 연극작업은 나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상보다 더 진지하고 진실된 태도로 연극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준비라고 생각해보자.

온전한 '나'로서의 준비..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 레지던스 참가기간에 촬영한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자료집**  
**2013~2018**

---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일** 2019년 1월

**디자인·인쇄** 디자인 스튜디오 블럭